

# 삶의 방식으로서의 디자인: 근대를 찾아 떠나는 디자인 역사문화 기행

## Design as a Way of Life A Short Field Trip, Looking Back the Modern Design History and Culture

한국디자인사학회 2024 가을 디자인 여행: 군산편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특집 기행: 디자인 기행 Special Feature: A Short Design Field Trip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참여: 조혜영, 안마노, 박지나, 오주은, 손채영,  
이지윤, 주윤아, 전시현, 정승훈, 한지윤  
Cho Haeyoung, An Mno, Park Jina, Oh Jueun,  
Sohn Mirabel Chaeyoung, Lee Jiyun, Ju Yoonah,  
Jeon Sihyeun, Chung Seunghoon, Han Jiyeon

조혜영 Cho Haeyoung  
한국디자인사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교수  
President of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Professor of Konkuk University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212~215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 기획의 글

근대란 무엇일까. 인공지능 시대에 근대를 돌아본다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가 전개되기 시작했을 때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원시공동체 사회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아니 어쩌면 아무 관계 없는 말들이라도 괜찮다. 근대는 한국에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주는 공간이다. 단절의 시간이기도 했고 아픔의 공간이기도 했다. 한국인에게 이 시기는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감추기 어려운 역사였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어 해방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근대를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거대한 변환의 시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유럽과 서구의 관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근대성은 거대 자본주의의 그물망 속에 위생과 교육, 가족, 규율 등을 제도화하며 도시라는 거대한 인공환경으로 구현되었다. 한국의 근대 도시는 바다를 통해서 항구를 통해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 원산, 목포, 부산, 군산 등이 있다. 이 시기 항구 도시들의 특성은 쌀 집하장과 은행, 창고 등이 있고 주변에 벽돌과 유리로 만든 근대 건축들이 배치된다. 이런 근대의 유적지를 인천이나 군산에 가면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근대는 도시의 고고학처럼 한국의 여기저기에 묻혀있다.

이번 2024년 여름 군산으로 가게 된 배경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의 <모던 데자인: 생활, 산업, 외교 하는 미술사> 전시에서 계속되는 근대에 대한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문헌에서만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23년 학회 교육이사들끼리 '한국디자인사' 수업을 위해서 인천을 다녀왔다. 역시 사료로만 보다가 직접 발로 걸어서 보고 경험해 보니 더 보이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어디로 갈지 고민 중에 프로파간다의 김광철 대표님이 군산에 북페어를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8월 마지막 날 북페어 오프닝에 맞추어 여행일을 정했다. 서울에서 군산으로 KTX 행이 애매해서 버스를 대절했다. 군산에서 처음 열리는 북페어에 참여한다는 것과 근대 도시 방문이라는 콘텐츠를 묶어서 디자인 여행을 기획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근대 도시에서 직접 걷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단편적이지만 지방 도시 재생이라는 차원에서 군산에서 열리는 첫 북 페스티벌에 직접 참여하여 그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작업도 되었다.

우리 학회는 디자인이 한국인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족하게 하는 양식과 태도가 될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으려고 노력한다. 어쩌면 19세기 윌리엄 모리스가 했던 일과 비슷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근대 디자인 여행은 친목과 여가 40%, 공부와 진지함 30%, 맛집과 재미 30% 정도의 부담 없지만 경험과 이야기가 함께 하는 여행이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지만 어른들과 함께 여행했던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했다.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그들에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것들과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번 군산 디자인 여행은 다음 글과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근대 도시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오주은이 글을 썼고, 여행 전반의 인상을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안마노가 기록했으며, 소설 『탁류』와 함께 과거를 스케치한 손채영의 글, 우리가 묵었던 숙소 ‘여미랑’을 비롯해서 군산에 남아있는 장소를 기록한 전시현의 글, 이지윤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다양한 시선들의 기록에 정승훈, 주윤아, 한지윤의 사진기록을 더했다. 아침 일찍 시작해서 그다음 날 저녁 전 헤어지기까지 짧은 여행이었지만, 군산의 과거와 현재를 장소와 책을 매개 삼아 사람들이라는 기억으로 남긴다. 📖

## Preface

Examining modernity in the age of AI boldly parallels F. Engels’ exploration of capitalism through the lens of primitive communal societies in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a critical work during the rise of industrial society post-Industrial Revolution. Modernity confronts us with multiple perspectives and narratives, yet it is undeniably marked by disconnection and pain. This era doesn't seamlessly integrate with our historical continuum; it was left as a blank space filled with emotional struggles as we strive to merge diverse stories into a cohesive context. Despite these formidable challenges, we have not only persevered but succeeded in achieving liberation and progressing toward the present.

Modernity has significantly transformed our cultural identity and has compelled us to reevaluate our experiences, particularly in light of Japanese colonization. This transformation is evident in the artificial environments of our cities, which institutionalize hygiene, education, family, and discipline under the grand capitalism framework. In Korea, modern cities were shaped around coastal ports, with cities like Incheon, Wonsan, Mokpo, Busan, and Gunsan as notable examples. These port cities are characterized by rice warehouses, banks, and storage facilities, skillfully juxtaposed with modern brick and glass structures—a striking testament to the remnants of modernity waiting to be uncovered in places like Incheon and Gunsan.

The inspiration for our trip to Gunsan in 2024 traces back to 2022. During the exhibition “Modern Design: Art for Living, Industry, and Diplomacy”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Gwacheon, it became clear that the answers to pressing questions about modernity reside beyond mere written documents and literature. The subsequent year, board members of the education department at DHSK visited Incheon for a “Korean Design History” class. This firsthand experience not only brought our historical studies to life but revealed insights far beyond what texts could impart.

As we planned our next destination, I learned of Kim Gwangchul, the CEO of Propaganda, organizing a book fair in Gunsan. We strategically scheduled our trip for the last day of August to coincide with the event's opening. Our design trip aimed to seamlessly blend attendance at Gunsan's inaugural book fair through exploring the modern city. This journey was an opportunity to navigate the urban environment while engaging with cultural revitalization projects through design. Ultimately, it became a vital opportunity to witness and document the first book festival in Gunsan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ncial urban regeneration.

Our goal is to uncover how design can enrich the lives of Koreans both materially and spiritually. Inspired by 19th-century Englishman William Morris,

we approached this trip as intentional tourism, balancing 40% fellowship and leisure, 30% study and seriousness, and 30% good food and fun. This careful balance ensured a fulfilling experience without overwhelming our participants. I envisioned this trip as a valuable opportunity for young students to connect with their elders, facilitating an exchange of ideas through a shared journey into the past and the world of books.

The Design Trip: Gunsan was meticulously documented through writings and photographs. Oh Jueun provided a compelling historical perspective on Gunsan as a modern city, while An Mano offered a designer's overall impression of the trip. Mirabel C. Son skillfully sketched the city's past alongside the novel "Takryu." Jeon Sihyun documented our visits to Gunsan, including our accommodation at ‘Yeomirang,’ while Lee Jiyeon captured the memories we created from various angles. Seunghoon Jung, Yoonah Joo, and Jiyeon Han contributed striking photographic documentation. Although the trip was brief, starting early in the morning and concluding the following evening, it was a great chance to enrich the past and present memories of Gunsan through the places we visited, the books we explored, and the people we encountered. 📖